한국무용과학회지, 2019, 제36권 제2호, pp.43~60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019, Vol.36, No.2, pp.43~60
1229-7836/19/527
DOI http://dx.doi.org/10.21539/Ksds.2019.36.2.43

"댄스 리터러시" 개념 틀에 근거한 한국무용 핵심요인의 탐색

김현정* 서울대학교

현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무용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으로 제시된 댄스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를 한국무용에 적용하여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인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에 근거하여 한국무용의 핵심요인(목표, 내용, 세부요소)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지금까지 한국무용 연구들을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소인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을 기준으로 문헌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국무용 능은 한국무용의 기능적 예술표현하기 위함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무용의 신체, 음악, 감정, 표현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한국무용의 동작과 장단, 호흡, 동선의 세부요소들을 통해 실천해 볼 수 있겠다. 둘째, 한국무용 지는 한국무용의 인지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 철학, 예술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무용사와 기록법, 안무법, 창작법의 세부요소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셋째, 한국무용 심은 한국무용을 심미적 상태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내용으로 감성과 영성, 종교, 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는 세부요소인 음양오행과 태극사상, 천인합일사상, 인(仁), 덕(德), 정(情)의 이념에 대한 이해가 한국무용을 수준 높은 경지로 즐길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한국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지며, 이는 여러 한국무용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로는 실제 교육 현장의 교육 강사들을 통해 얻어지는 교수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주요어 : 문화예술교육, 한국무용교육, 댄스리터러시, 무용소양

Ⅰ. 서 론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인 창의성, 독창성, 인성의 핵심적 요소를 갖춘 교과로써 중요하게 여겨져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양질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2010년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 2009)을 통해 창의 인성 교육으로서 예술이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예술교육이 기능 중심적 교육이 아닌 창의성, 상상력을 개발하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가까운 개념으로 교육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한국무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분명 문화예술교육 맥락에서 민속춤이라는 것으로 한국무용이 다뤄지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한국무용의 지향점과 핵심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된 결과물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은 교육 현장에서 무용 교사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문화예술 무용교육사들을 교육시킬 때 한국무용을 제대로 이해시키는데 제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으로서 댄스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기에 이

* 주저자 : hyun3045@naver.com

를 한국무용에 적용하여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댄스 리터러시 개념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개념과 용어 사용에 있어 동양적이며, 한국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국내 스포츠교육학자 최의창(2011, 2018)이 제안한 '무용소양'(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이 한국무용에 보다 적용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는 댄스리터러시에 대해 '무용소양'으로 재개념화 하여 그 구성요소들을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이라 정의하였다. 세 자질들의 어우러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용안(舞踊眼, dance phronesis)'이다. 여기서 이 세 가지의 자질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 비로소 '무용안목(舞踊眼目)'이 생겨난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무용교육표준(2011)에서는 '댄스리터러시'란 무용을 체험하고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모든 과정(말하고, 쓰고, 보고, 읽는)을 통해 얻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한다(서예원 외, 2013).

임수진(2015)은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소를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으로 개념화 하고, 각 요소별 교수방법을 탐색하였다. 무용 교육의 다양한 요소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방식은 통합적이어야 하고, 실기와 이론이 균형 잡힌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혜리(2007)는 무용의 소통성에 집중하면서 '무용 읽기'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사회 속에서 무용이 하나의 소통 방법이며, 여러 소통 방법들을 매체(media)로 바라보았다. 그러한 무용의 매체는 극장무용, 대중매체의 무용, 디지털 무용이라고 보았으며, 각 매체 속에서의 무용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그 의미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는 다양한 매체 속에서 나타나는 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읽기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에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신상미(2015)는 현대사회 디지털 문화와 관련하여 그 속에 내재된 댄스리터러시에 대해 바라보며 교육 인류학적 접근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문화 리터러시의 하나로서 댄스리터러시의 강조하며, 디지털 문화 속에서 댄스리터러시의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댄스 리터러시에 관해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계층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접근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Hong(2000)이 대표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댄스리터러시'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그녀는 이상적인 무용교육모델로서 '댄스리터러시'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는 운동감각, 안무능력, 비평능력이 골고루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인 댄스리터러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용 교육의 다양한 요소들을 살릴 수 있는 통합예술교육 방식을 지향한다. 이렇듯 댄스리터러시는 전인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한 분야로서 기존의 기능 중심 교육이 아닌, 통합적 교육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적 교육 방식의 맥락으로, 국내 연구인 서예원(2011)은 무용교육이 다양한 분야와 함께 통합교육으로 이뤄진다면, 통합적 접근을 통해 종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술을 통해 창의성 개발만이 아니라 예술과 삶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은 무용에 대한 통합적, 종합적 이해를 높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실기 중심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문헌연구들의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중 동양적이고, 한국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제안한 최의창(2011, 2018)의 무용소양(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의 개념 틀을 활용하고 분석하여, 한국무용의 핵심 요인들(목표, 내용, 세부요소)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최의창(2011, 2018)은 기존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이 문해력의 차원을 넘어서 온전히 무용을 알고, 할 줄 알며, 마음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에 맞는 단어인 소양의 개념을 사용하여, 무용소양(舞踊素養)이라고 정의하였다. 무용소양은 곧 할 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으며,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무용이 수행하기(performing)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창작하기(creating), 감상하기(appreciating)가 필요하며, 이는 무용을 기능적, 인지적, 태도적 차원에서 무용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각각의 차원들이 바로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이라는 구성요소로 개념화된 것이다. 먼저, 무용능은 기술적인 동작을 습득하는 것에서부터 수준 높은 예술 표현이 되는 능력을 포함한다. 무용지는 무용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이해하여 무용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말한다. 무용심은 무용과 관련한 태도나 심성적 자질을 말하는 것인데, 무용에 대한 열정, 마음, 감상 등과 같은 능력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 영역들의 균형적인 이해는 곧 무용소양이 깊어짐을 말하며, 이는 무용에 대한 수준 높은 안목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한국무용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배우는 이의 무용 향유력 함양'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의 영역의 각 구성요인들(목표, 내용, 세부요소)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핵심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한국무용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무용교육자의 올바른 준비를 위한 교사양성 프로그램 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한국무용의 구성요소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한국무용의 문헌 연구들을 토대로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인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을 분석 기준으로 삼고 분류하여 문헌 분석하였다.

1. 자료수집

한국무용 소양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를 알아보는데 있어 먼저 기존 문헌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범위를 '한국무용'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얻어낸 연구 중에서 분석하였는데, 그 범위가 방대하여 기간을 최근 10년 이내(단, 유의미한 자료의 경우 이전의 자료도 포함)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분야에 있어 한국무용의 전 분야 교육, 역사, 철학, 작품분석 등 모두를 포함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및 문헌분석, 작품분석 등의 모든 연구를 포괄하여 연구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저서 및 학술연구, 석·박사 학위논문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나, 미간행 자료보다는 발행된 학술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와 서울대중앙도서관의 검색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1단계 '한국무용' 키워드로 얻어진 자료 서울대중앙도서관 3,677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081건의 연구 중, 2단계 키워드는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이 되는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과 관련하여 검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단계의 첫째, '무용능' 에서는 한국무용과 함께 '동작, 호흡, 기본무, 기본 동작, 교육'의 키워드로 얻어진 자료 중 내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추려 총 46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무용지'는 한국무용과 함께 '한국무용사, 안무, 기록법, 호흡법, 작품, 전통춤, 민속무'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얻어진 자료에서 본 연구에 유의미한 자료들인 총 41편의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무용심'은 한국무용 '철학, 인성, 정신, 정서, 원리, 사상, 문화'의 키워드를 통해 얻어진 자료 중 유의미한 자료들로 총 23편의 연구들로 분석하였다. 세 가지로 나눠진 문헌들을 토대로 종합 분석하여 이론적 표본 추출 하였다. 각 요소별로 의미 있는 개념들을 도출하여 내용으로 구분하고, 이를 이해시키기 개념들을 세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2. 분석 기준 및 자료 분석

한국무용 연구에 있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제별로 세분화되어 연구되는 경향이었다. 즉 한국무용에 대한 전체적 개념으로 바라본 연구보다는 한국무용과 교육, 한국무용 작품분석, 한국무용사, 한국무용 호흡, 한국무

용 동작, 한국무용 철학과 사상 등 한국무용을 다양한 분야로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기에 한국무용이라는 구성요소를 찾기에는 분석 기준이 필요했다. 본 연구 목적에 맞게, 그리고 현 시대의 요구에 맞고, 한국무용 특성에 맞는 동양적이며, 한국 철학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무용 개념연구는 비교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무용교육의 교육 표준 개발과 관련한 연구(문화예술교육표준개발 연구, 2011; 서예원외, 2013; 임수진, 2015; 최의창, 2011), 예술 강사에 대한 연구(권덕원 외, 2007; 박은희, 2008; 신주경, 2015; 임수진 외, 2017; 홍애령, 2012)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장르별 구분보다는 통합적 무용교육의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장르별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 교육은 장르(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를 구별한 수업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나, 분명 한국무용의 움직임 시간, 발레 움직임 시간 등 다양한 문화로서 무용 장르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에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한국무용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으로서 한국무용을 바라보고, 개념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의 분석 방법인 Spradley.C 의 질적 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의 '영역분석'(Domain Analysis)에서는 기존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에서 그 영역을 구분하였다. 댄스리터러시라는 것이 한국무용의 상위 개념으로서 무용교육 목적에 대한 구성요소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무용 리터러시는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상위 개념의 범주를 분석의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댄스리터러시의 기준에 따라 국내 학자 최의창(2011)이 주장하는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소인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을 기준으로 하여, 각 영역별로 자료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에서는 이전 한국무용의 연구들이 직접적으로 능, 지, 심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연구 주제 및 방법, 결과들을 토대로 각 영역별 적합한 연구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 연구마다 연구 결과들에서 제시하는 한국무용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키워드로 코딩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을 통해 초기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며, 다음으로 세부적 요인을 구분하는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 마지막으로 종합적, 맥락적 분석하는 조건적 매트릭스(Conditional Matrix)의 과정을 거쳤다.

3. 연구의 신뢰성

연구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법이 활용되었다. Creswall(2017)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은 곧 연구의 정확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의 진실성과 해석의 타당성 검토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자료 간의 '지속적인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Wolcott(1990a)는 '비판적 요소'들을 통해 자료의 타당성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다원화'를 통해 다양한 방면의 주제와 관점에서 연구 결과의 논리적 근거들을 확보하였다. 연구의 진실성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무용전공교수 2인, 무용교육전공 박사과정 4인과 함께 2차례의 검토(Member Check) 및 협의(Peer Debriefing) 과정을 거쳤다(Lincoln & Guba, 1985).

Ⅲ. 연구 결과

1. 한국무용능의 구성요소

한국무용과 관련한 연구들을 모아 보면, 한국무용의 기술적인 측면(동작, 테크닉, 작품분석, 작품동작 분석,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기본무, 기본동작 분석)과 관련한 논문들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최의창(2011)에 따르면, 무용능(舞踊能, dance competence)이란 "무용의 기본 동작들과 기초 기술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을 스스로 실천해내는 신체적 능력과 기능적 재능"(p.153)으로 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기술 및 표현 방식을 말한다. 사실 과거 무용 교육에서는 이런 '무용능'을 중심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 왔었다. 과거에 한국무용을 배운다는 것은 곧 '춤을 출 줄 아는 것'이라 여겼으며, 실기 중심적인 교육이 주가 되었다(황인주, 2011). 그렇기에 과거 한국무용과 관련한 논문들이 여기서 말하는 '무용능'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았다.

작품 분석을 통해 한국무용 동작의 기술적 측면을 분석한 경우가 있고, 한국무용을 통한 신체 변화와 그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다수였다. 후자의 경우는 연구 대상별 다양한 대상들에게 한국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주로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크게 4가지로, 유년기(김해성, 2006; 최지연, 이주리, 2012; 홍정효, 2008;), 청소년기(신소영, 장미경, 2016;), 중년기(권명주, 2010; 박수영, 2011; 이미영, 2011), 노년기(양진숙, 차수정, 2016; 유수정, 2017; 유정숙, 2010; 이애덕, 이주립, 2003; 홍예주, 박인영, 오덕자, 2011)로 나눠졌다. 이외에도 특정 직업군을 대상(군인, 다문화, 직장인 등)으로 진행된 연구도 있었다. 그 내용은 한국무용의 동작과 작품을 배우는 것을 통한 운동적인 효과라든지, 신체적 변화를 보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무용 효과에 대한 연구들의 한계점은 양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컸다. 예를 들면, 이애덕, 이주립(2003)의 경우, 노령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춘 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한국무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체력증진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16주간, 주 2회, 각 1시간씩 한국무용 기본동작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건강도(민첩성, 근력, 하지유연성, 상지유연성, 평형성)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측정 방법은 근력의 경우 악력grip strength, 민첩성은 매트 스위치 방식, 유연성은 앞으로 구부리는 방식, 평형성은 외발검사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무용을 통해 단기간에 신체적 기능 향상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 한국무용을 기능적, 운동적으로 보고, 이를 측정한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어 보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각 시기별 논문의 경우는 먼저 유년기는 창의성과 표현력, 한국문화 이해의 측면으로 연구가 많았다. 주로 무용 교육 연구 분야였으며, 주로 그 효과를 양적 연구로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청소년기는 정서적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감정 표현과 소통의 목적으로 한국무용을 적용하였다. 한국무용을 정서적 요인과 연결시킨 목적은 앞서 연구자가 말한 이유와 같이 감성적 표현이 주가 되는 무용 장르이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그리고 무언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 간 새로운 소통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무용이라는 방식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박성혜, 2017). 세 번째 중년기 여성과 마지막 노년기에게 한국무용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운동적 요소와 함께 무용이라는 예술이 가지는 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다. 4가지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국무용 교육방법은 작품 순서를 배우는 것과 창작 활동을 하는 것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준비 운동 및 몸 풀기 제외). 작품 순서의 경우는 기억력과 학습력 향상의 효과를 가졌으며, 창작 활동의 경우 창의성, 표현력, 소통과 관련한 학습효과를 가져왔다.

표 1. 연령별 한국무용 교육의 목적과 방법

교육 목적	유년기	창의성	표현력	문화이해	지식전달
	청소년	정서	감정	소통	표현
	중년여성	정서	감정	운동	
	노년기				
교육 방법	작품순서	기억력	학습력	이해력	
	창작활동	창의력	표현력	소통력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들이 한국무용의 동작 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무용의 동작을 통한 예술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으나 예술적 표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한국무용 장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무용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 신체 기능적, 동작 기술적 측면 보다는 표 1과 같이 한국무용만의 감성, 정서, 표현력, 창의성, 소통력, 이해력 등을 강조하였고, 그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한국무용은 동작의 기술만을 전달할 수 없는 무용 장르이며, 동작에 앞서 감성과 정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무용 능은 기능적 예술 표현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무용의 신체, 음악, 감정, 표현에 대한 교육 내용이 제공 되어야 한다.

표 2. 한국무용능의 목적과 내용

	한국무용능
목적	한국무용의 기능적 예술표현
내용	신체, 음악, 표현, 감정

위와 같은 한국무용능의 내용(신체, 음악, 감정,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 이해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는 먼저 한국무용 기본 동작들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한국무용 기본 동작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자면, 한국무용 기본 동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작품 분석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김경숙, 2013; 백현순, 2015; 오레지나, 2017a; 이현주, 2000; 정선혜, 2013; 정혜진, 2016; 조보미, 2015; 차수정, 2006; 허순선 외 4, 2013). 그리고 한국 무용 기본 춤의 시초인 최승희 기본춤 [조선민족무용기본]에 대한 연구(김자영, 2002; 이애순, 허영일, 2002; 이애순, 2007)가 있으며, 다음으로 잘 알려진 박금슬의 [춤동작] 기본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무용의 세부요인은 크게 동작(몸 사위), 장단, 동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작(몸 사위)은 아랫몸 사위, 윗몸 사위, 온몸 사위의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허순선 외 (2013)에서는 동작을 배우기 이전에 몸에 대한 동양 철학에 대한 이해와 장단의 이해가 필수라고 말한다. 또한 조보미(2015)에 따르면, 아랫사위의 경우 디딤사위, 돋음사위, 뜀사위, 맴사위, 앉음사위로 볼 수 있으며, 윗몸 사위는 올림사위, 내림사위, 굽힘사위, 폄사위, 엎음사위, 젖힘사위로 구분된다. 상하의 사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온몸 사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온몸 사위는 호흡과 장단의 강・약, 고・저에 의해 변형되며, 다양한 동선과 돌고, 뛰는 변형을 통해 다양한 한국무용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장단은 동작의 속도를 부여해 주는데, 그 기본 장단은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타령, 진양이 있다. 사실 한국음악 장단은 수없이 많은 장단들이 있으며, 민속무용의 경우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장단들도 많다. 예를 들어,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달구벌 덧배기 춤은 허튼춤계열로 투박하면서 동시에 신명과 즉흥성이 넘치는 제의적 성격을 가진 농악 춤이다. 경상도 지역의 덧배기 장단은 여러 장단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특징은 물 흐르듯 부드럽다가도 휙 낚아채 맺는 등의 신명 높은 장단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백현순, 2015).

이처럼 장단의 흐름과 속도는 춤의 성격과 작품의 분위기를 나타내며, 동시에 동작에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에 더해 동선이 동작의 화려함을 더해준다. 동작과 장단이 만나 동선을 가지면 동작은 이동성을 갖게 된다(조보미, 2015). 동작의 높고, 낮음, 회전, 뛰기 등 운동성을 가짐과 동시에 다양한 대형 구성을 통해 여러 가지 연출도 가능하다. 조보미(2015)는 한국무용의 기본형을 동작성, 시간성, 공간성으로 보았으며, 동작성은 몸 사위, 시간성은 장단, 공간성은 이동, 도약, 회전으로 바라보았다.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표 3. 한국무용능의 세부요소

세부 요소	동작	윗몸 사위	아랫몸사위	온몸 사위		
	장단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타령	진양
	동선	회전	높낮음	앞뒤	뛰기	
	호흡	맺기	풀기	어르기		

한국무용 동작은 동작, 장단, 동선, 호흡들이 어우러져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호흡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보며, 동작을 잘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한국무용의 호흡은 무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여러 한국무용 연구에서도 한국무용에 있어 호흡이 가장 중요하며, 표현의 원천적 요소라고 말한다(배정혜, 2004). 그렇기에 한국무용에서는 호흡과 관련된 연구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주로 동작과 호흡의 관계를 운동역학적인 측면으로 분석한 양적 연구가 많았지만(김은정, 2004; 김향선 외, 2009; 나안숙, 2014; 박양선 외, 2015; 안주연 외, 2015; 정귀인, 2008), 한국무용에 있어 호흡을 동작 표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정귀인(2008)에 따르면, 각 장르별로 춤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동작과 장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호흡'의 차이가 크다고 말한다. 발레의 경우는 상승하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호흡을 많이 사용하며, 신체 중심이 상체로 향한다. 반면 한국 무용의 경우 단전에 호흡 중심을 두고, 하체 중심적이다. 이를 비교해볼 때 한국 무용은 발레와 같은 회전과 뛰는 동작 혹은 상승 동작이라 하더라도 중심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보인다. 또한 호흡은 무용음악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무용 음악은 장단, 말 그대로 길고 짧은 음들의 조화로 이루어진 음악이다. 한국 전통악기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울림과 여운의 소리, 때로는 맺는 소리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에 한국 무용에서도 어르고, 맺고, 춤이 장단과 함께 엇박자로 어우러진 것이 정적이면서 동시에 즉흥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이다(조보미, 2015). 또한 전통 음악을 들어보면 한국무용 동작과 마찬가지로 음악이 끊어질 듯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 무용 호흡도 마찬가지로 작품 하나가 끝날 때까지 호흡은 길게 이어진다. 이를 형상화 하자면 직선의 느낌보다는 곡선의 느낌처럼 계속 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어르고, 맺고, 풀고의 과정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숨체를 더 상세히 보자면 큰숨체, 작음숨체, 잔숨체, 잔숨 맺음체로 나눌 수 있다(정귀인, 2008). 이러한 호흡의 정교함은 곧 동작의 완성도와 연결되며, 이는 어느 무용 장르에서나 마찬가지이다. 호흡 조절은 곧 무용 동작의 안정감과 균형감, 숙련도를 높이는 일과 연결된다(정귀인, 2008). 이렇게 호흡은 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동작의 기술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무용 동작의 기본요소를 살피는데 있어, 호흡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무용의 기본 동작들은 현재 춤의 종류별, 지역별, 류파별, 개인별로 다양하면서, 동시에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한 한국 무용 기본 동작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모두를 종합해 한국무용 능의 세부 요소들을 살펴보자면 공통적으로 표 3과 같은 구성요소가 도출 될 수 있다.

한국무용의 능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먼저, 한국무용 능의 목적은 한국무용의 기능적 예술표현을 알아 한국무용 춤을 추는 일, 더 나아가 삶이 춤이 되는 일일 것이다.

표 4. 한국무용 능의 구성요소

	한국무용능
목적	한국무용의 기능적 예술표현
내용	신체, 음악, 표현, 감정
세부요소	동작, 장단, 동선, 호흡

이와 같은 춤을 추는 것, 즉 한국무용으로 기능적 예술표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용의 신체, 음악, 표현, 감정의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무용 동작과 장단, 동선, 호흡의 세부요소를 통해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Dewey. J(1980)의 개념처럼 예술의 경험이 삶의 경험의 한 과정이 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진정한 한국무용 춤추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무용지의 구성요소

한국무용 지에는 가장 먼저 한국무용사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무용표기법과 안무법, 창작법, 교수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최의창(2011), 댄스리터러시에서 말하는 무용지(舞踊智, dance knowledge)는 "무용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명제적 지식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인지적 능력과 지성적 자질"(p.154)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용의 다양한 측면(생리학적, 의학적, 역학적, 역사적, 철학적, 사회학적, 문화학적, 심리학적, 인류학적 지식 등)을 다룬 지식들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정도와 수준을 말한다(최의창 2011). 한국무용은 민족무용으로서 한국의 역사와 철학, 인류학, 사회적 측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 역사, 철학, 예술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무용 작품들의 경우 스토리가 있는 구성보다는 하나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춤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고 한국무용을 감상하게 된다면 자칫 지루하게 혹은 애매모호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무용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창작 배경(작가의 의도, 시대적 배경, 환경적 요인 등)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이해한다면 한층 더 한국무용의 묘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무용사 연구는 한국무용 학(學)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무용의 발전과 계승에도 보완적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한국무용은 예전부터 도제식으로 전승, 교육되어져 왔으며, 후대에 이르러서야 기록을 남기고 보존해오고 있다. 한국무용사는 1976년 성경린의 「한국의 무용」단행본을 시작으로 기록되어졌다. 이외에도 90년대 단행본은 김매자「한국무용사」(1977), 장사훈「한국전통무용연구」(1977),이병옥「한국무용사1」(1996), 김효분「한국 전통춤의 흐름」(1998), 정병호「한국무용의 전통춤」(1999)가 있다. 주로 시대별 흐름에 따른 한국무용사에 대한 내용이며, 이병옥(1996)의 경우는 특별히 고대시대를 중심으로 기술되어있다. 2000년대에는 김경애, 김채현, 김종오「한국춤통사」(2011), 김혜정「한국무용사의 이해」(2003), 이영란「한국무용사(역사흐름을 통한)」(2005), 김경미「한국근대무용사」(2007), 김영희, 김채현, 이종숙, 조경아「한국춤통사」(2014), 손선숙「한국궁중무용사」(2017) 등 이전보다 많은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2000년대에 와서는 한국무용사에 대해 '종류별', '개인별'로 다양한 시각에서 보았다(유화정, 2017). 한국무용사는 주로 시대별 흐름에 따라 기술되어진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무용사를 '유파별', '종류별', '지역별', '개인별'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유진주, 염현주, 2016).

표 5. 한국무용사 구분

구분	세부내용
시대별	고대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시대(일제강점기, 해방후), 현대시대(1960년대 이후)
종류별	궁중무용, 민속무용, 종교무용, 신무용, 창작무용
유파별	이매방류, 한영숙류, 강선영류 등
개인별	한성준, 최승희, 이매방, 한영숙, 강선영, 조택원 등
지역별	경기류, 호남류, 영동/영남류, 이북류, 제주류

한국무용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류화진, 2004; 성기숙, 2002; 유진주, 염현주, 2016; 유화정,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017; 이예순, 백현순, 2007; 최해리, 2014), 무용의 종류별 특히 유파별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되었다(강성범, 2004; 김경숙, 2015; 김은수, 2007; 문희철, 2015; 성기숙, 2009; 송미숙, 2011; 정성숙, 2011; 차수정, 2013). 한국무용사에 있어 유파별 연구는 한국무용사에 있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살풀이여도 이매방류와 한영숙류의 차이가 있어 이를 비교하거나 작품의 특정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비교하거나(송미숙, 2011; 정성숙,2011), 작품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연구(김은숙, 2007; 김경숙, 2015)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같은 살풀이 춤이라 하더라도, 한영숙류는 경기지역이며, 이매방류는 호남지역이기에 작품의 분위기가 다르다(송미숙, 2011). 또한 한영숙류는 재인계통의 춤이고, 이매방류는 기방계통춤이기 때문에 발생배경 자체에서 무용동작에 영향을 준다(정성숙, 2011). 그리고 한영숙류는 스승인 한성준의 색을 담은 승무이기에, 남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상향적, 진취적이다. 이에 반해 이매방류는 권번에서 배운 춤사위 색채가 강하여 여성적이며, 소극적이고, 하향적이며, 안정적이다. 이러한 연유들로 같은 작품임에도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며, 이런 차이들을 비교하며 경험하고 감상해보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한국무용 지의 보존과 전수에 있어 한국무용의 기록적 측면을 말할 수 있다. 무용은 공연예술의 특성을 갖기에 보존, 전수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요즘은 영상 매체 활용을 통해 기록하거나, 과거의 무보와 같은 무용기록법, 작품분석 연구, 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수를 통해 보존되어 오고 있다. 한국무용에서도 무용 표기법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한국 무용의 경우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제안으로 임학선(1999)이 '호흡 표기법'을 개발하였다. 외국 무용에서는 라바노테이션Labanotation이라는 무용 표기법이 있는데, 이를 한국무용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가장 중요한 호흡에 대한 표기를 할 수 없으며, 박자의 개념도 서양음악의 2분박으로 기록될 수가 없다. 또한 서양 무용과 달리 한국무용은 춤 동작의 방향과 움직임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한 이유는 '호흡'에 있으며, 한국 무용 작품을 기록하고, 동작을 설명하는 데 있어 '호흡'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한국무용 속성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개발된 한국무용 표기법과 관련한 연구와 이에 따른 작품 분석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김영은, 2016; 임학선, 1999; 임현선, 2006; 임희정, 2005; 정경화, 2007; 홍은주, 2012). 한국 무용 특성이 잘 반영된 한국무용만의 표기법이기에 기록적 측면에서의 한국무용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활용성의 측면이나 보완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의 무용 기록법에 있어 가장 한국무용과 근접한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안무법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작품의 안무가를 인터뷰한 형식의 연구(김경은, 안문경, 2007; 김기화, 임학선, 2011; 김지영, 2011; 안병주, 김은정, 1999; 김미선, 윤수미, 2018; 임선영, 2018; 정보경, 2016)한국무용 창작 단체 혹은 경연대회 우승 작품들의 경향 분석 연구(엄은진, 강혜련, 2012; 이민채, 윤미라 2012; 유승관, 2016; 윤덕경, 2015)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이 중 김경은, 안문경 (2007), 김지영(2011), 임선영(2018)은 한국무용 안무에 대하여 다룬다.

특히 임선영(2018)의 연구에서는 안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작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용수와 함께하는 안무과정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창작자는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과 움직임을 찾아내는 깊은 몰입이 필요한데, 이 과정 속에서 창작자는 무용수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것 또한 안무 과정의 큰 몫으로 평가하였다. 창작자만큼이나 무용수들에게도 작품에 관해 참여몰입(engagement)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영감적으로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이끄는 것이 창작자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작품이 독무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창작 과정에서 여러 무용수들을 창작자의 의도만큼 표현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쉽지 않다. 많은 시간 만들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창작자만큼 안무 과정을 함께하도록 이끄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서 안무가의 리더십 8요소를 꼽고 있으며, 인간애, 창조활동 자극, 영감적 동기부여, 소명의식, 이타적 책임감, 멘토링 기술, 감각적

직관력, 심신통합능력을 말했다. 안무가는 곧 작품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많은 무용수들을 이끄는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에서 안무 과정에 있어 새로운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무용 지는 한국무용사를 통해 한국무용의 문화, 역사, 철학, 예술을 이해하는 것과 한국무용의 안무법, 창작법, 교수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무용을 직접 출 때도 그렇고, 감상을 한다 해도 한국무용사에 대한 이해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무용 안무법의 경우 안무 과정을 어떠한 규칙 혹은 기준을 가지고 논의되기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러한 이유는 감정적이고, 주관적 해석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안무자의 창작 작품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기록되어지고 있다. 안무가의 생애와 그 안무가만의 창작 과정을 기록된 연구들로 전수되고 있다.

표 6. 한국무용 지의 구성요소

	한국무용지
목적	한국무용의 인지적 이해
내용	문화, 역사, 철학, 예술
세부요소	무용사, 기록법, 안무법, 창작법

한국무용의 지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무용 지의 목적은 한국무용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무용의 역사와 문화, 철학, 예술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한국무용을 추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용사와 기록법, 안무법, 창작법의 세부요소들을 통한 지식적인 이해가 한국무용의 표현력을 높이고, 수준 높은 감상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3. 한국무용심의 구성요소

한국무용을 잘 안다는 것은 결국 한국무용의 '심'을 아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앞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한국무용은 동작 중심적인 무용이 아니라, 특히 감성 중심적인 무용장르이기에 '무용 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한국무용의 선행연구들의 종합해보면 '무용 심'에 대한 내용은 어느 연구에서나 꼭 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용 심'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한국무용의 작품분석이든, 무용교육이든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의창(2011)에 따르면, 무용심(舞踊心, dance disposition)이란 "무용에 대한 사랑, 열정, 인내 등 사람이 안쪽에서 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행해낼 수 있도록 북돋우고 이끌어가는 요인들"(p.154)로 다양한 종류의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의미한다.

한국무용 연구 중 무용심과 관련한 연구로 총 30편을 분석한 결과 한국무용은 시대상을 반영한 무용이기에 그 시대가 가진 종교에서 비롯된 철학이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에 한국무용에 내재된 사상은 한국 문화에 있던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적 성향을 지니거나, 무속신앙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양오행사상이다. 음양오행 사상은 한국무용 뿐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 악기, 전통 의상에서도 기본이 되는 사상이다. 문진수, 이미영(2014)에 따르면, 음양은 '오행' 다섯 가지 움직임인 木, 火, 土, 金, 水로 나타나며, 이는 회음회양의 원리로 반복 순환하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한국무용 동작의 맺고 푸르고 어르고 멈추는 동작들이 호흡과 함께 끊임없이 순환되는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음양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이 하나의 쌍을 이뤄 조화를 이루거나 이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명암, 남녀, 상하, 좌우, 물불, 낮밤 등의 이치는 우리에게 자연미와 조화미를 통해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그렇기에 한국무용은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며, 이를 표현해 내기 위해서는 몸소 이치를 깨닫고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경지에 오르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조화미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 사상들이 한국무용에 영향을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태극사상 또한 호흡의 흐름, 동작의 형태에 있어 곡선의 미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중동은 움직이는 것과 멈춘 것 사이 간의 조화로움과 절제미를 볼 수 있다. 삼재론, 천지인합일 또한 조화로움 속 아름다움과 이치를 나타나는 의미이다. 즉 어느 종교를 불문하고 한국무용에 내재된 사상이 추구하는 것은 곧 인간과 자연의 이치를 나타내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실천성을 강화하고, 세상에 실현해야 할 덕목으로서 인(仁), 덕(德), 정(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래 한국무용 교육은 전인 교육적인 성격과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박혜연(2013)은 한국무용 속에 심성교육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그 내용을 구조화하였다. 한국무용의 심성교육은 크게 지성적 차원, 감성적 차원, 덕성적 차원, 영성적 차원 4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차원마다 두 가지 내용 및 세부내용 요소로 나누었다. 한국무용이 다양한 측면의 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한국무용은 감정, 감성을 다루는 무용이기 때문에 동작적인 단련만으로는 관객을 이해시킬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레지나(2017b)에 따르면, 한국무용은 전통의 계승적 측면으로 현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한국무용에 내재된 전통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저 양식화되고, 관습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한국무용은 한국의 전통으로서 전수되어져야 함이 분명하며, 특히 그 속에 내재된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한국무용의 심의 세부요소

세부 요소	감성	신명	절제	흥	한
	영성	소요유	무아지경	초월	카타르시스
	종교	유교	불교	도교	무속신앙
	미학	여백미	절제미	정중동	곡선미

이러한 전통적 사상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한국무용 심의 세부요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먼저 감성은 신명, 흥, 멋, 한, 절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성은 소요유, 무아지경, 초월, 카타르시스로 나타난다. 손환, 고은숙(2013)은 맺고, 푸는 움직임이 한과 신명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흡'이 가교역할을 하는데, '호흡'은 도교사상의 기(氣)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기(氣)사상은 양기와 음기로 말하며, 결국 음양사상과 연결된다. 한국무용의 대표적 감성에 있어도 '한'과 '흥'은 양립되는 두 성질이며, '절제'의 감성이 곁들어져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영성의 경우 무속 신앙에서 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흥과 신명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무용의 미학에 있어 미의식은 여백미, 절제미, 정중동의 미, 곡선미의 미를 꼽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양극을 하나로 품은 것에서 우리는 절제를 통한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신명과 흥, 그러면서 정적인 움직임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서 우리는 절제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움직임과 무대에서 여백의 미와 태극사상에서 발전되어온 곡선의 미 또한 다양한 곳에서 나타난다. 사실 미의식은 사상과 정신에서 발생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기에 앞서 설명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무용의 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대표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충분할 것이며, 이는 한국무용을 감상할 때나, 직접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표 8. 한국무용 심의 구성요소

	한국무용심
목적	한국무용의 심미적 상태
내용	감성, 영성, 종교, 미학
세부요소	음양오행, 태극사상, 천인합일, 인덕정

한국무용의 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무용 심의 목적은 한국무용을 심미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성과 영성, 종교, 미학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한국무용에 나타나는 감성은 신명과 절제, 흥, 한으로 나타나며, 영성은 소요유, 무아지경, 초월, 카타르시스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무용에 영향을 준 종교는 유교, 불교, 도교, 무속신앙이 되며, 이에 따른 한국무용의 미학에서 온 미의식은 여백미, 절제미, 정중동의 미, 곡선의 미를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요소로는 음양오행과 태극사상, 천인합일사상에 대한 이해와 인(仁), 덕(德), 정(情)의 도덕 이념에 대한 깨달음이 곧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한국무용을 보는 안목을 가지는 일일 것이다.

Ⅳ. 논의 및 결론

문화예술교육 방식은 기존 전문무용교육 방식과 차이가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은 무용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댄스리터러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무용 장르가 문화예술교육 속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한국무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한국무용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먼저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인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문헌 분석 하였다. 기존 한국무용 문헌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들을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소인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무용의 구성요소는 크게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으로 보고, 각 요소의 목적과 내용, 세부요소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한국무용의 능, 지, 심 세 가지 구성요소는 표 9와 같다.

표 9. 한국무용의 능, 지, 심 구성요소

	한국무용능	한국무용지	한국무용심
목적	한국무용의 기능적 예술표현	한국무용의 인지적 이해	한국무용의 심미적 상태
내용	신체, 음악, 표현, 감정	문화, 역사, 철학, 예술	감성, 영성, 종교, 미학
세부요소	동작, 장단, 동선, 호흡	무용사, 기록법, 안무법, 창작법	음양오행,태극사상, 천인합일, 인덕정

먼저, 한국무용 능은 한국무용의 기능적 예술표현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무용의 신체와 음악, 표현, 감정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어야 한국무용의 예술표현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무용의 동작과 장단, 동선, 호흡의 세부요소들을 통해 실천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무용 지는 한국무용의 인지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 철학, 예술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무용사와 기록법, 안무법, 창작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무용 심은 한국무용을 심미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내용으로는 한국무용의 감성과 영성, 종교, 미학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각각 세부내용을 가지고 있다. 한국무용의 감성은 신명과 절제, 흥, 한으로 설명되며, 영성은 소요유, 무아지경, 초월, 카타르시스로 이해될 수 있다. 종교는 유교와 불교, 도교,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여기서 발전된 여백미, 절제미, 정중동의 미, 곡선의 미를 한국무용 속에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양오행과 태극사상, 천인합일사상, 인(仁), 덕(德), 정(情)의 이념에 대한 이해가 한국무용을 수준 높은 경지로 즐길 수 있게 할 것이다.

한국무용의 능, 지, 심의 요소들이 갖는 목적은 다르나, 그 내용에 있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으며, 이는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그렇기에 한국무용도 각 요소들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여러 측면들이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한국무용의 구성요소 간 관계를 살펴보면 무용 심의 요소가 가장 넓은 기본 바탕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용이라는 무용 장르는 앞서 언급했듯 감정적 요소가 많은 무용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대부분 기존 선행연구에서 한국무용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용 심의 요소가 먼저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한국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요소들에 있어, 한국무용 심의 요소가 한국무용 능과 지의 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만 봐도 확인된다. 한국무용 능에서도 감정이 내용으로써 동작보다 상위 체계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용 지의 요소는 한국무용의 감성을 이해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 된다. 한국무용은 민족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곧 동작에 대한 이해이자, 한국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 문화의 다양한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곧 한국무용의 감정 표현과 감상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무용능, 지, 심의 관계를 도식화 하자면, 표층적 차원이 무용 능이며, 심층적 차원으로 가는 중간 역할이 무용 지, 심층적 차원이 바로 무용 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그림 1과 같다. 즉 한국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 한국무용에 대한 무용소양을 갖는 일은 곧 한국무용의 무용심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한국무용 무용심을 이해하는 것은 곧 무용지를 이해하여 창작할 수 있으며, 무용능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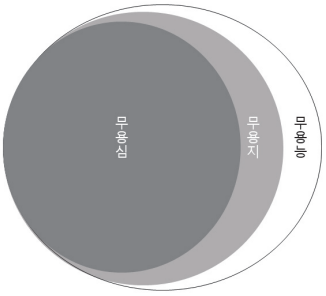

그림 1. 한국무용 능, 지, 심의 영역

본 연구의 문헌 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한국무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한국무용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목적인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을 분석 기준으로 한국무용만의 구성요소를 살펴 본 것의 큰 차이점을 갖는다. 문화예술교육은 기존 전문무용교육의 모습과 다르기에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한국무용 장르만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한국무용의 구성요소를 찾는 연구이다. 기존 한국무용의 연구들은 분야가 세분화된 연구가 많았다. 한국무용의 여러 측면을 한 군데 모아놓고 교육 분야에서 논의한 연구는 부족했다. 그렇기에 교육적 측면에서 한국무용만이 갖는 요소는 무엇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기에 의미를 갖는다. 셋째, 한국무용의 구성요소를 통해 각 요소들이 갖는 관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연구이다. 댄스리터

러시의 구성요소인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무용의 요소는 무용심의 요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민족무용이기 때문이며, 스토리가 있는 작품보다는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작품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용능, 무용지의 경우 무용심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언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교육은 무용 동작을 배우고 익히는 개념이 아니라, 무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게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낮은 연령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무용의 융합적 속성, 생활 친화적인 속성, 심미적, 신체적 효과 등을 부각시키는 내용요소의 보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연령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르별, 지역별, 시대별로 양식화된 춤의 정형화된 동작을 수동적으로 반복,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시대, 지역, 장르에서 동작이 갖는 사회문화적 기호로서의 역할, 장으레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 동작 표현에 대한 자발적 관심을 견인해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무용의 스토리텔링이나 내러티브 기능을 학생들 스스로 체득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기대수준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 - 예술강사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연구, 2016-

위와 같은 특성들은 한국무용이 가진 속성과 비슷하다. 한국무용의 경우 민속춤으로서 융합적인 요소, 생활 친화적 요소, 심미적 요소, 신체적 요소를 고루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국 문화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춤이기에 춤과 함께 사회문화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무용의 동작과 작품은 정형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미적 이해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표현력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무용을 기능 중심적이 아니라, 한국무용 댄스리터러시의 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곧 문화예술교육의 맥락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무용의 각 구성요소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인 댄스리터러시의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을 기준으로 파악해보고, 각 요소들의 내용과 그 세부요소로 구분지어 보았다. 사실 이전 한국무용의 다양한 연구들에서 얻어진 내용이었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한국무용을 문화예술교육적 맥락에서 한국무용의 전체를 바라보는 연구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교육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한국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으로 제시된 댄스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한국무용에 적용하여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한국무용을 바라보고, 각 구성요소에 대한 파악은 곧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무용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무용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으로 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무용의 구성요소와 교육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한국무용 교육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교육 현장 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무용 댄스 리터러시의 필수 요인 분석 도출과 함께 프로그램 제안이 후속 연구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참고문헌

강성범(2004). LMA를 통한 한국 전통 무용의 움직임 특성의 분석 -중요 무형 문화재 제27호 이매방류 승무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004, Vol.6**, p.1

교육과학기술부(2009). 『**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9

권명주(2010). 생활무용으로서 한국전통무용 프로그램의 재수강 요인. **한국무용학회지, 2010, Vol.10**(1), pp.15-20

권덕원, 김화숙, 이경미, 박철, 권경민(2007). **2007 예술강사 지원사업 강사 연수 프로그램 개선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경미(2007). **한국근대무용사**. 서울:동해

김경애, 김채현, 김종오(2011). **우리무용 100년**. 서울: 현암사.

김경은, 안문경(2007). 무용 안무의 창의성에 대한 질적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2007, Vol.14**, p.1

김경숙(2013). 김천흥 기본춤의 궁중춤적 특성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Vol.21**. 10-34p.

김경숙(2015). 한영숙류 승무의 당악과장 특성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2015, Vol.38**, pp.57-73

김기화, 임학선(2011). 한국창작춤 "마음꽃"의 표현기법 분석. **한국무용연구, 2011, Vol.29**(2), p.147

김미선, 윤수미(2018). 춤본Ⅰ의 구조적 특징 탐색. **한국무용연구, 2018, Vol.36**(2), p.29

김매자(1977). **韓國舞踊史**. 서울: 금연재.

김영은(2016). 임학선의 호흡 분석 – 2단계 끌어올리고 내리기를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Vol.16**(1), pp.35-46

김은숙(2007). 한영숙 승무(僧舞)와 이매방 승무(僧舞) 춤사위의 비교(比較) 분석(分析) -염불(念佛)과장을 중심. **한국무용사학, 2007, Vol.6**, p.119

김은정(2004). **한국무용동작에서 호흡기본 훈련이 하지 관절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자영(2002). 최승희의 조선민족 무용기본에 관한 연구. **이화체육논집, 6**, 13-28.

김지영(2011). 시나위 안무법에 관한 연구 -시간, 공간, 힘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2011, Vol.29**(1), p.209

김해성(2006). 진주포구락무의 유아 춤놀이적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연구 24권** 1호.

김혜정(2003). **한국무용사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김향선, 김유진, 임학선, 정선해, 안의수(2009). 호흡생리학적 분석을 통한 한국무용 호흡표기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Vol.18**, p.1

김효분(1998). **한국전통춤의 흐름**. 서울: 현대미학사.

나안숙(2014). 한국무용 동작 시 호흡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운동역학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9), pp.131-140.

류화진(2004). 한국무용사 문헌자료 분석 -선사시대~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한국예술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2), p.160.

문진수, 이미영(2014). 풍물춤에 내재된 음양사상. **무용예술학연구. 제40집**, 67~88.

문희철(2015). 이매방류「승무」의 전승에 관한 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2015, Vol.29**, pp.145-162.

박성혜(2017). **무용을 통한 청소년 정서함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수영(2011).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참여에 따른 정서표현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지, 2011, Vol.11**(1), pp.43-59.

박양선, 장지영 (2015). 한국무용 팔허리감기 동작 시 호흡 사용 유무에 따른 상지의 운동학적 분석. **한국리듬운동학회지, Vol.8**(2), p.17.

박은희(2008).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혜연(2013). 심성교육을 위한 한국무용 교육내용의 구조화.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Vol.20**(4), pp.1-20.

배정혜(2004). **배정혜의 7일간 춤여행**. 서울: 청아출판사.

백현순(2015). 달구벌 덧배기춤의 미적(美的) 고찰(考察). **한국무용연구, 2015, Vol.33**(3), p.143.

서예원(2011). 통합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 **무용예술학연구, Vol.33**, pp.31-50.

서예원, 조은숙, 문영, 김윤진 (2013). 무용교육표준 개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Vol.42**, pp.21-49.

성경린(1976). **한국의 무용**.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성기숙(2002). 백제 기악무의 원류와 일본 전파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002, Vol.34**, p.43.
성기숙(2009). 호남춤의 명인 이매방 연구. **한국무용연구, 2009, Vol.27**(2), p.1.
손선숙(2017). **한국궁중무용사**. 서울: 보고사.
손환, 고은숙(2013). 한국춤에서 호흡의 의미와 움직임의 미.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AJPESS), 2013, Vol.2**, p.1.
송미숙(2011). 류파별 살풀이춤을 통해 본 한국춤의 美. **한국무용사학, 2011, Vol.12**, pp.129-156.
송수남(1988). **韓國舞踊史**. 서울: 금광.
신상미(2015). 디지털 댄스 리터러시의 교육인류학적 패러다임. **우리춤과 과학기술, Vol.28**, pp.25-52.
신소영, 장미경(2016). 한국무용과 짐스틱 운동이 여고생의 혈중지질 농도와 뇌신경세포 생성인자 및 관련요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권** 3호.
신주경(2015). **무용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대안적 접근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안병주, 김은정 (1999). 한국 무용에 있어 창작에 대한 개념정위의 필요성. **무용예술학연구, Vol.3**, pp.79-95.
안주연, 이경옥 (2015). 호흡 방법에 따른 한국무용 외발뛰기 동작의 운동역학적 분석. **한국운동역학회지, Vol.25**(2), p.199.
양진숙, 차수정(2016). 한국무용교육 프로그램이 중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권** 3호.
엄은진, 강혜련(2012). 국립무용단 역대단장 5인의 작품세계 고찰. **한국무용학회지, Vol.12**(2), pp.21-34.
오레지나(2017a). 배명균류 산조춤의 구성적 특징.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17, Vol.28**(4), p.103.
오레지나(2017b). 한국민속춤에 내재된 생태적 사유에 대한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17, Vol.28**(3), p.65.
유수정(2017). **12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가 노인의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승관(2016).《한국 현대춤작가 12인전》의 작품 경향 연구: 남성 한국무용 안무가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Issue 40**, pp.187-219.
유정숙(2010). 한국무용 참가가 노인의 운동능력과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 **운동학 학술지. Vol. 12**(2), p. 33-43.
유진주, 염현주(2016). 한국무용사 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방향의 탐색. **무용역사기록학. Vol.41**. 111p.
유화정 (2017). 한국무용사 관련 단행본의 출판 현황 및 특징.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17, Vol.28**(3), p.199.
윤덕경(2015). 한국창작무용의 정체성과 가능성 -한국무용제전 30년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2015, Vol.33**(1), p.47.
이미영(2011).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참여 여부에 따른 지각된 운동방해요인의 차이.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011, Vol.68**, p.163.
이민채, 윤미라(2012). 한국창작춤의 시대적 경향 분석을 통한 한국성 수용의 성과와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012, Vol.70**(4), p.83.
이병옥(1996). **한국무용사연구 1 (고대편)**. 서울: 노리.
이영란(2005). **한국무용사(역사의 흐름을 통한)**. 서울: 스포츠북스.
이애덕, 이주립(2003). 한국무용 동작을 통한 노인의 체력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09**-42:631-637.
이애순(2007). 최승희의 '조선민족무용기본' 실체 연구. **동양예술, 12**, 159-182.
이애순, 허영일(2002). 최승희 무용 '기본' 실체에 관한 고찰 : '립 춤'기본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5**, 172-201.
이예순, 백현순(2007). 한국무용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스포츠리서치, 2007, Vol.18**(5), p.1065.
이현주(2000). "effort-shape분석이론을 기초로 한 김진걸 산조춤의 특성 연구".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000, Vol.28**, p.239.
임선영(2018). 안무가는 무엇으로 무용수를 움직이는가. **한국무용과학회지, 2018, Vol.35**(1), p.95.
임수진(2015a).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수진(2015b). 댄스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015, Vol.73**(3), p.123.
임수진, 문영(2017).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예술강사 우수 수업사례 질적 분석. **한국예술연구, Issue 17**, pp.171-194.
임학선(1999). 춤 표기법에 관한 연구 1 – 호흡 표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회, 17**, 109-139.
임현선(2006). 호흡구조 분석을 통한 태평무 호흡표기법 연구 -한성준류 강선영의 태평무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Vol.24**(1),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p.197.
임희정(2005). **한국무용호흡과 심상훈련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병호(1999). **한국의 전통춤**. 서울: 집문당.
장사훈(1977). **한국전통무용**. 서울: 일지사.
정경화(2007). 한성준류 태평무 터벌림 과장의 호흡유형과 특성 연구. **한국무용연구, Vol.25**(2), p.187.
정귀인(2008). **호흡이 무용동작의 부드러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보경(2016). 임학선 창작춤의 표현형식에 나타난 동양미학적 특성. **한국무용연구, 2016, Vol.34**(2), p.143.
정선혜(2013). 한국무용 기본 춤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무용연구학회, **한국무용연구 31권** 1호, 215-241.
정성숙(2011). 한영숙류와 이매방류 승무의 계통적 성향 연구. **공연문화연구, 2011, Vol.23**, p.185.
정혜진(2016). 최현 작품 비상 에 나타난 춤동작 특징 연구. **한국무용연구, 2016, Vol.34**(1), p.169.
조보미(2015). 한국무용 아랫몸사위 기본무 구성 원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15, Vol.26**(1), p.181.
차수정(2006). 한국 통무용의 기본동작 구성과 기교육로그램 연구 : 상체동작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철학학회지, 제14권** 제3호.
차수정(2013). 한영숙 '승무' 에 내재된 한국적 미의식과 교육적 가치. **무용예술학연구, 30 January 2013, Vol.40**, pp.131-146.
최의창(2011). 댄스 리터러시 혹은 무용소양-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재검토. **한국무용기록학회, 2011, 제 21권**, pp.139-161.
최의창(2018). **스포츠리터러시**. 서울: 레인보우북스.
최지연, 이주리 (2012). 한국무용을 활용한 신체활동과 유아의 운동능력.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3**(6), pp.21-34.
최해리(2014). 무용구술채록문의 분석과 해석을 통한 한국근현대무용사 서술의 한계 극복. **무용역사기록학, December 2014**, Issue 35, pp.31-6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무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d). **학교 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한혜리(2007). 무용읽기와 무용매체의 관계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07, Vol.18**(2), p.1.
허순선, 오레지나, 김옥희,양서정, 이유진(2013). 한국무용 기본춤사위의 구조와 용어. 한국무용연구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4집** 2호..
홍애령(2012). 무용교육자 전문성의 핵심 차원으로서 심성적 자질의 재조명과 함양 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1), 23-42.
홍예주, 박인영, 오덕자(2011). 12주간 한국무용 참여가 여성노인의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011, Vol.23**, p.199.
홍은주(2012). 박병천류 진도북춤의 "맺음기법"연구. **한국무용연구, Vol.30**(1), p.117.
홍정효(2008). 유아의 심(心), 기(氣), 신(身)교육으로서 한국무용. **유아교육논총 17권** 2호..
황인주(2011). 기능적 관점에 따른 무용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Vol.40**(4), pp.539-548.
Corbin,J., & Strauss, A. (2007).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cques and pro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3rd ed.)* Thousand Oaks, CA: Sage.
Creswell, J. W.(201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ition*. London: Sage.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공역)(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Dewey, J(1980). *Arts as Experience*. New York: Minton. 이재언 역(2009).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서울: 책세상.
Hong, T. (2000). *Developing dance literacy in the postmodern: An approach to curriculum*. Paper presented at Dancing in the Millennium: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Washington DC.
Linco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Wolcott, H. F. (1990a). On seeking-and rejecting-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In E. W. Eisner & A. Peshkin (Eds.), *Qualitative inquiry in education: The continuing debate* (pp.121-152).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f the Korean Dance Essential Elements Based on Conception of Dance Literacy

Kim, Hyun-Jung *Seoul National Univ.*

Now days concern and practice about dance as Culture and Art Education that purpose is to have Culture and Art literacy. However, the concern insufficient about Korean Dance that is part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Since recently Many study have been being about Dance literacy that purpose of dance education as Culture and Art education, Dance Literacy concept is able to apply to Korean Dance study.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plore the Korean Dance essential elements(purpose, contents, factor) based on conception of dance literacy.

The research method of the study is literature analysis about Korean Dance studies by dance competence, dance knowledge, dance disposition that elements of dance literacy. The research result of the first, Korean dance competence is that the purpose of know how to do art expression skill of Korean Dance. To do this, we should understand contents about of korean dance body, music, emotion and expression. It can express through factor of movement, rhythm, breathing, moving line. Second, the purpose of Korean Dance knowledge is cognitive understanding of Korean Dance. To do this, we should understand contents about of Korean culture, history, philosophy and arts. It can get through factors that Korean Dance history, dance notation and creative method. Third, the purpose of Korean Dance disposition is understanding aesthetic state of Korean Dance. We can understand through contents about sensitivity, spirituality, religion and aesthetic. If it can understand through factors that Yin-Yang and five elements, Taeguk philosophy, the Unity of Heaven and Human philosophy, benevolence(仁), virtue (德), affection(情), you will have a high level of Korean Dance Literacy.

This study is significant discuss in Culture and Art Education context about Korean Dance. This study can be used any korean dance education field. I proposed some future directions for developing teaching method and education program through get to education field and teacher.

Key words : Culture and Art Education, Korean Dance Education, Dance literacy

논문투고일: 2019. 02. 25
논문심사일: 2019. 03. 28
심사완료일: 2019. 04. 16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